

## 2/3(목) 스가랴 묵상 6

### 스가랴 4:1-14

**말씀 읽기와 묵상 -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**

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다섯 번째 환상으로 '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'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.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주로 해석합니다. 저명한 예언서 구약 학자인 반 게메렌에 따르면 스가랴의 여덟 개 환상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. 또 이 여덟 개의 환상들은 내용적으로 서로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심에 놓인 환상들 (4번째와 5번째)은 대비의 정점과 초점을 이룬다고 말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가 본 환상의 가장 정점을 이루는 예언의 말씀입니다.

####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

다섯 번째 환상으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'순금 일곱 등잔대'와 '두 감람나무'를 보여주셨습니다(1절하-2절, "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"). 스가랴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사에게 질문합니다(4절, "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").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본문은 이상하게도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간에 삽입합니다. 이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스가랴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묵상하고 6-10절 말씀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#### 스가랴의 질문과 답

스가랴가 4절에서 했던 질문이 11-12절에서 또다시 등장합니다(11-12절, "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니"). 2절과 12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일곱 등잔에 두 금관을 통해 제공하는 기름은 두 감람나무에서 흐르는 '올리브유'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'일곱 등잔'은 기름을 제공받는 '이스라엘'을 상징합니다. 또 이것이 '이스라엘'을 상징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(계 1:20, "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.").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'일곱 금 촛대'와 스가랴서의 '일곱 등잔'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던 동일한 성물이기 때문입니다.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여러 상징적인 표현이 스가랴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. 한편, 스가랴가 질문한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? 이것은 14절의 말씀대로 '기름 부음 받은 자 둘' 즉 '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'를 의미합니다. 이들의 역할은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옆에 서서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. 스룹바벨은 당시 유다의 총독으로서 '왕'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유다의 영적 지도자로서 '제사장과 선지자'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들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. 구약 시대 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통치했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으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.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기름부음을

받은 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가지 직분을 완전히 수행하신 것입니다(사 9:6, “이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, 모사라, 전능하신 하나님이라, 영존하시는 아버지라,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.”; 히 4:14, “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찌어다.”; 신 18:15, “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찌니라.”). 그러므로, 기름부음 받은 자 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.

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소 안에 일곱 촛대가 있었던 것처럼 구약 시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유일하게 지정된 한 장소 뿐이었습니다. 그곳이 바로 실로에 위치한 성막이고 또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(왕상 9:3, “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”). 당시 일반 백성들은 인간 중보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더이상 지정된 한 장소와 인간 중보자가 없이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(히 1:1-2상, “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..”).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이 땅에서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특권을 특권으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. 북한에서 2년 반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나신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원로 임현수 목사님은 그의 간증에서 삶의 자유가 이토록 좋고 소중한지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.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.

**적용 -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?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.**

#### **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**

- 1. 적용의 기도:**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.
- 2. 중동을 위한 기도:** 중동의 기독교 인구는 1900년대에 중동 인구의 13%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4%에 불과하다. 이는 20세기 동안 중동은 식민 당국에 의한 민족 국가 분할,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부상, 식민 국외 추방자의 이주 등 많은 극적인 정치적, 사회적 도전과 공동체, 억압적인 정치 체제의 힘 등 21세기 초에 이러한 요인들과 다른 요인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의 탈출을 조장하여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. 북반구의 기독교 쇠퇴와 중동지역의 기독교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남반구의 기독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세계기독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하자.
- 3. 교회를 위한 기도:** 오늘은 모든 부교역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.
- 4.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:** 우크라이나 이창배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